

주제어 : 언어 정책, 언어 안보, 연방정부 프로그램 <러시아어>, 루스키 미르, 국제인도적협력청

Keywords : Language Policy, Linguistic Security, Federal Government Action Programme <Russian Language>, Russkyi mir, Rossotrudnichestvo  
투 고 일 : 2011. 4. 20  
심 사 일 : 2011. 5. 1 ~ 2011. 5. 25  
게재확정일 : 2011. 6. 5

# 탈소비에트 시기 러시아 정부의 러시아어 확산 정책\*

남 해 현\*\*

- 목차 » I. 서론: 루스키 미르의 정체성 형성 요인으로서  
러시아어와 언어 안보  
II. 탈소비에트 시기 러시아어의 위협 요인  
III. 러시아 정부의 러시아어 확산 정책  
IV. 결 론

## 국문요약

소비에트 해체 이후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어 사용자의 수와 사용 영역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 특히 전통적인 러시아어 사용 지역이던 탈소비에트 공간에서 러시아어는 법적 지위의 하락, 러시아어 정보공간의 감소 등 다양한 도전을 받고 있다. 러시아어의 확산은 국가 위상 제고라는 추상적 의미에서뿐 아니라, 러시아연방의 국가 안보, 세계 각지에 형성된 루스키 미르의 정체성 확립, 전 세계에서 러시아 연방의 소프트 파워 강화를 위해 필수적이다. 본 논문은 탈소비에트 시기 러시아어가 처한 위협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이에 대처하는 러시아 정부의 언어 확산 정책을 살펴보았다.

\* 본 논문은 러시아 루스키 미르 재단의 지원 (2009/П-466)을 받아 연구되었습니다. Данная работа подготовлена при поддержке Фонда «Русский мир» (2009/П-4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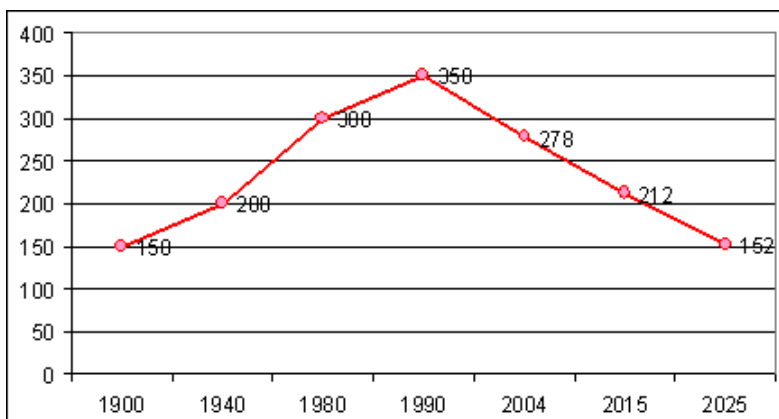
\*\* 고려대학교 러시아CIS 연구소 연구교수

## I. 서론: 루스키 미르의 정체성 형성 요인으로서 러시아어와 언어 안보

소련은 2차 세계대전 이후 20세기 말까지 미국과 함께 냉전체제를 이끌어온 초강대국이었다. 이에 따라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러시아어는 그 사용 인구가 3억 5천만 명이 넘는 거대 언어였다. 그러나 소비에트의 해체 이후 슈퍼파워로서 지정학적 영향력의 상실은 해외에서 러시아어의 위상 하락으로 이어졌으며,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어 사용자의 수와 사용 영역이 급감하였다. 러시아어로부터의 이탈 현상은 특히 탈소비에트 공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오늘날 러시아어 사용자는 2억 6천만 명으로, 그 확산 정도에 따라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의 뒤를 이어 4번째 자리를 지킨다. 그러나 지금의 경향이 계속 된다면, 2015년경 러시아어 구사자 수는 2억 1천 2백만 명으로 감소하여 프랑스어, 힌디/우르두어, 아랍어가 러시아어를 앞지르게 되고, 러시아어는 7위로 밀려날 것이다. 게다가 2025년경에는 러시아어가 포르투갈어와 벵갈어에도 밀리게 되어 10위권에 머물기도 어려워 보인다.

[표 1] 20세기와 21세기 1/4분기까지 러시아어 사용인구 변동 예상<sup>1)</sup>



1) А.Л.Арефьев, “Сколько людей говорят и будут говорить по-русски?” *Демоскоп Weekly*, No. 251-252 (19.06-20.08.2006).

하지만 아직도 1억 명 이상의 해외 러시아어 사용자가 유럽, 미국, 이스라엘, 중국, 아프리카 등 여러 대륙에 걸쳐 분포한다. 이와 같은 러시아어 사용자의 전 지구적 확산에는 20세기 소비에트 정부의 강력한 정치적, 군사적, 문화적 헤게모니 외에도, 러시아 사람들과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사용했던 다양한 민족들이 세계 각지로 이주한 것이 원인이 되었다. 유럽에서는 러시아어 사용자 가운데 2/3가 러시아와 구소련 공화국 출신의 독일인, 그리스인, 유태인, 아르메니아인, 우크라이나인 등이다.

러시아는 이러한 규모의 초국가적이고, 초대륙적이며, 공통의 문화적 정체성으로 묶인 “러시아 세계”(Русский мир/Russian World)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갖는다. 2007년 당시 푸틴 대통령은 루스키 미르가 현대 세계 문명에서 대체될 수 없는 고유한 요소라고 했다.<sup>2)</sup> “루스키 미르”라는 개념은 오랜 시기에 걸쳐 형성된 러시아 디아스포라, 1991년 소비에트 해체 이후 구소련공화국에 남은 러시아인, 그리고 세계 각지에서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비러시아인 모두를 통합하는 개념이다. 러시아의 지식인들은 루스키 미르의 소속성을 결정하는 세 가지 범주로서 러시아어와 러시아 문화, 러시아에 대한 애정을 들었는데, 이 가운데 특히 러시아어의 역할을 강조했다.<sup>3)</sup> 즉 언어를 잃어버리면, 루스키 미르에 대한 소속성도 잃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해외 러시아 동포의 러시아어 구사력이 점차 떨어지면서, 이들을 묶는 정체성도 약해지고 있다.

러시아어에 대한 위협은 비단 러시아연방의 바깥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러시아연방은 2005년 ‘러시아연방 국어법’(Закон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языке РФ)을 통해 러시아어를 국어로 지정했으나, 동시에 러시아연방을 이루는 주체들에게 민족 고유어를 해당 공화국 국어로 규정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따라서 각 공화국에서는 두 개의 국어가 존재하는 특수한 상황이 전개되고

2) A. Lerhis, A. Kudors, I. Indāns, *Outside Influence on the Ethnic Integration Process in Latvia* (Riga, 2007).

3) Ф.М.Березин, “Место и роль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в постсоветской России,” *Теория и практика общественно-научной информации*, вып. 13 (Москва, 1997); В.А.Тишков, “Русский мир: смысл и стратегия,” *Стратегия России*, No. 7 (Июль, 2007); В.А.Тишков, “Русский язык и русскоязычное население в странах СНГ и Балтии,” Доклад на Общем собрании РАН (19.12.2007). <http://www.russian.slavica.org/article7386.html> (검색일: 2010.12.15)

있다. 그리하여 러시아어는 러시아연방 내에서도 국어의 법적 지위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 영역과 위상이 점차 흔들리고 있다. 공통된 국어의 부정은 제반 분쟁과 갈등의 해결을 위한 조정자, 균형자로서 중앙 정부의 위상을 약화시킨다. 때문에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어의 위상 강화가 국가의 전략적 이해와 상응한다고 본다.<sup>4)</sup>

이처럼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어를 전 세계적으로 형성된 루스키 미르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핵심 요소로서, 또 러시아 국가 안보의 중요한 기반 요소로 본다. 그리하여 러시아 정부는 대내외적으로 러시아어의 위상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탈소비에트 시기 러시아어의 위상과 언어상황에 대해서는 러시아에서도 여러 차례 조사가 이루어졌다. 최근에 이루어진 대표적인 조사로는 2003년도 러시아 외무부가 실시한 전 세계에서 러시아어의 위상과 사용 정도에 대한 조사<sup>5)</sup>와 2008년 <Наследие Евразии>와 <Евразийский монитор> 재단이 탈소비에트 지역에서 실시했던 러시아어 사용 정도에 대한 연구를 들 수 있다.<sup>6)</sup> 탈소비에트 지역 국가들의 새로운 언어 정책과 언어상황은 해외 사회언어학자들과 정치학자들의 연구 대상이 되기도 했다.<sup>7)</sup> 최근에는 개별 국가별로 사회적, 교육적 환경과 관련한 언어 상황의 변화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sup>8)</sup> 국내에서도 이 주제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sup>9)</sup>

4) И.И.Халева, “Лингвистическая безопасность России,” *Вестник Российской Академии Наук*, том 76, No. 2 (2006).

5) 이 조사의 결과로 러시아 외무부의 연차보고서 *Русский язык в мире* (2003)가 만들어졌다. <http://dipkurier.narod.ru/glavdip/doklad1.htm>

6) 이 조사의 결과로 단행본 *Русский язык в новых независимых государствах* (2008)이 출간되었다. <http://www.fundeh.org/publications/books/2/>

7) D. D. Laitin, *Identity in Formation: The Russian-Speaking Populations in the Near Abroad*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8); J. M. Landau & B. Kellner-Heinkele, *Politics of Language in the Ex-Soviet Muslim States*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1); Smith, G., et al., *Nation-Building in the Post-Soviet Borderlands: The Politics of National Identiti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8) L. Bilaniuk, *Contested Tongues: Language Politics and Cultural Correction in Ukraine*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05); N. B. Mečkovskaja, “The Post-Soviet Russian Language: New Features of Its Sociolinguistic Status,” *Russian Linguistics*, Vol. 29 (2005); M. H. Ciscel, *The Language of the Moldovans: Romania, Russia, and Identity in an Ex-Soviet Republic* (Lanham: Lexington Books, 2007).

9) 정경택, “카자흐스탄에서 러시아어의 지위 변화,” 『노어노문학』, 제15권, 제2호 (서울: 한국노어노문학회, 2003); 정경택, “중앙아시아에서의 러시아어의 지위 변화 연구(타지키스탄의 경우),” 『슬라브어연구』, 제9권 (서울: 슬라브어학회, 2004); 정경택, “우즈베키스탄에서 러시아어의 지위 변화,”

그러나 오늘날 러시아어가 처한 위협에 대처하는 러시아 정부의 정책을 분석하는 연구는 러시아에서도 아직 그리 많지 않다. 이는 러시아 정부의 실질적인 언어정책이 2002년에야 시작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어떤 분석이나 평가를 내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1, 2차 “<러시아어> 연방 프로그램”(Федеральная целевая программа <Русский язык>)의 실행이 종료되었으므로, 이제는 이에 대한 분석이 어느 정도 가능하리라 본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논문은 러시아어의 위상과 그 위협 요인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처하는 러시아의 정책적 노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II장에서는 전통적인 러시아어 사용 지역이던 탈소비에트 공간의 언어 상황과 러시아어의 위상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다각적으로 살펴보겠다. 탈소비에트 공간(пост-советское пространство)이란 러시아연방을 포함한 구소련 15개 공화국을 가리킨다. 탈소비에트 공간에서 러시아어의 상황은 탈소비에트 시기 전 세계에서 러시아어가 처한 상황을 명료하게 보여주는 예가 된다. III장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러시아 정부의 러시아어 확산 정책을 고찰할 것이다. IV장에서는 러시아어 확산 정책을 평가하고, 효과적인 정책 실현을 위해 보장되어야 할 점을 제언함으로써 결론을 대신한다.

## II. 탈소비에트 시기 러시아어의 위협 요인

### 1. 탈소비에트 공간의 언어 상황

소비에트 당시, 소비에트 전체 인구 2억 8천 6백만 명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러시아어를 국어로 사용했고, 모든 교육기관에서 러시아어를 필수적으로 교

『슬라브어연구』, 제11권 (서울: 슬라브어학회, 2006); 정경택, “러시아어의 국제적 위상 변화(크르그즈 공화국의 경우),” 『슬라브어연구』, 제12권 (서울: 슬라브어학회, 2007); 정경택, “아제르바이잔에서의 언어 상황 변화 연구,” 『슬라브어연구』, 제14권, 제2호 (서울: 슬라브어학회, 2009); 정경택, “러시아연방에서 러시아어의 위상,” 『Acta Russiana』, 제3호 (서울: 고려대학교 러시아CIS연구소, 2011); 한용, “구소련 지역에서의 러시아어의 위상과 그 전망,” 『동유럽발칸학』, 제8권, 제2호 (서울: 동유럽발칸학회, 2006).

육했다. 반면 2004년 기준 러시아연방을 제외한 14개 구소련공화국의 인구 약 1억 4천만 명 가운데 러시아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6천 3백만 명 정도였으며, 4천만 명은 러시아어를 이해할 수는 있지만, 소통의 수단으로는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으며, 거의 4천만 명이 러시아어를 더 이상 구사하지 못했다.<sup>10)</sup>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경향이 지속된다면, 가까운 시일 내에 구소련공화국에서 러시아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수는 8천만 명까지 증가해서 러시아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의 수를 능가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구소련공화국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러시아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의 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라트비아에서 오늘날 약 60%의 주민들이 러시아어를 구사하는데, 이 가운데 중년층과 노년층이 80%에 달하고, 15세 이하 청소년들은 17%에 불과하다. 대다수 국가의 젊은이들도 영어를 비롯한 유럽 언어를 배우려고 하며, 특히 아제르바이잔에서는 터키의 경제적, 문화적, 언어적 영향력이 크게 증대되었다. 이밖에 소비에트 해체 이후 CIS와 발트 지역 국가에 남은 러시아 국적 인구의 감소도 이들 지역에서 러시아어 사용자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 구소련공화국에 거주하는 러시아인들의 수는 1989년 2천 3백만 명에서 2000년에는 1천 6백만 명으로 줄었다. 특히 타지키스탄과 그루지야에서 러시아인의 수는 이 기간 동안 약 1/5로 감소했으며,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에서도 러시아인의 수가 1/3로 감소했다.<sup>11)</sup> 이는 다른 국가로의 이주뿐 아니라, 새로운 정치적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국적을 바꾼 결과이기 때문인데, 앞으로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sup>1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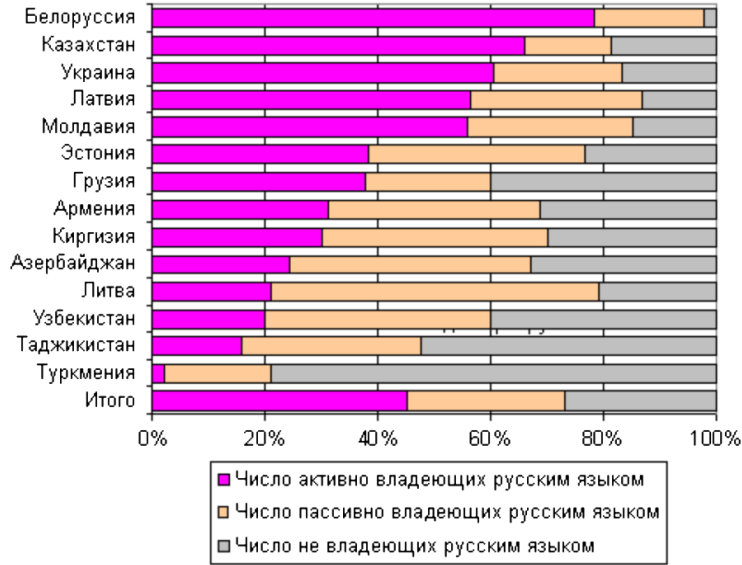
전반적으로 탈소비에트의 많은 지역에서 러시아어 소통은 아직도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러시아어 구사 능력과 그 확산 정도는 공화국별로 매우 다르다.

10) Арефьев, Указ. соч.

11) Е.Щербакова, "Почти во всех постсоветских странах выросла доля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титульной национальности" *Демоскоп Weekly*, No. 2355-236 (20.02-05.03.2006).

12) Тишков, Указ. соч. <http://www.russian.slavica.org/article7386.html>

[표 2] 2004년 기준 탈소비에트 국가 국민들의 러시아어 구사력<sup>13)</sup>



이 가운데 러시아어의 사용이 가장 안정적인 곳은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이다. 이들 국가에서 러시아어는 대부분의 주민들에 의해 가정, 직장, 교육 영역에서 공식적인 국어만큼 널리 사용되며, 러시아어로 된 대중매체도 널리 확산되어 있다. 다만 우크라이나 젊은이들의 러시아어 구사 능력은 상대적으로 낮으며, 러시아어를 배우는 학습자의 수도 점차 줄어들고 있으므로, 향후 러시아어는 현재의 지위를 잃어갈 것으로 보인다.<sup>14)</sup>

## 2. 러시아어의 법적 지위 하락

소비에트 해체 이후 대다수 구소련공화국에서는 대표 민족의 언어를 국어로 지정하고, 러시아어를 점차 배제하는 배타적인 언어법이 채택되었다. 소비

13) Арефьев, Указ. соч.

14) 2008년 갤럽(Gallup) 조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민은 러시아어 학습에 가장 낮은 관심도를 보였다. 이는 많은 우크라이나인이 이미 러시아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러시아어를 오랜 세월 우크라이나의 독립의지를 억압했던 러시아 제국의 상징으로 보고, 이를 탈피하려는 경향에서 비롯된다. <http://www.eurasianhome.org/xml/t/socials.xml?lang=ru&nic=socials&pid=57> (검색일: 2010.12.23) 그러므로 대중적 지지를 받는 우크라이나의 정치인 올리아 티모셴코는 대중연설에서 우크라이나어만을 사용한다.

에트의 법적 타성에 따라 러시아어에 민족 간 소통어(язык межэтнической коммуникации)의 지위를 부여했던 국가들도 오늘날 그러한 지위를 삭제했거나 자국의 언어를 보호하는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다. 그리하여 오늘날 대부분의 CIS와 발트 지역 국가에서 러시아어는 국어(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язык)나 공식어(официальный язык)의 지위를 갖고 못하고, 러시아어 사용에 대해서도 어떤 법적 보장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러시아어 배제 정책을 가장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는 곳은 발트 지역과 자카프카지예 지역 국가이다. 반면 러시아어의 법적 지위가 가장 공고한 곳은 벨라루스, 키르기스, 카자흐스탄이다. 벨라루스에서 러시아어는 1995년 벨라루스어와 함께 국어의 지위를 부여받았다. 2003년도 러시아 외무부의 보고서 『세계 속의 러시아어』(Русский язык в мире)에 따르면 벨라루스의 주요 대중 매체는 러시아어를 사용하고, 많은 대중 서적이 러시아어로 간행되며, 벨라루스 학생 75%가 러시아 학교에서 교육받고, 대학 강의 90% 이상이 러시아어로 진행된다. 이처럼 벨라루스에서 러시아어는 오히려 백러시아어의 지위를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카자흐스탄에서 러시아어는 카자흐와 공식적으로는 동등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법적으로 공식어의 지위를 갖는 것은 아니므로, 이후에 언제든지 이 지위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키르기스에서 러시아어는 2000년에 공식어의 지위를 부여 받았지만, 최근 이 지역에서 러시아어 사용 인구는 점차 줄고 있다.<sup>15)</sup>

몰다비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에서 러시아어는 국어나 공식어에 비해 좀 더 낮은, 이른바 민족 간 소통어라는 지위를 갖고 있다. 나아가 러시아어는 우크라이나에서는 소수민족언어(язык национальных меньшинств)의 지위를,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그루지야,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에서는 외국어(иностранный язык)의 지위를 갖는다.

탈소비에트 공간의 많은 국가에서 민족어의 부상은 러시아어 사용자가

15) 카자흐스탄의 헌법 58조 (1)항과 93조는 카자흐어만을 입법부와 행정부의 필수 사용 언어로 규정하고 있다. 러시아어는 7조 3항에서 공식어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받았지만, 나머지 조항에서는 여타 소수민족의 언어들과 동일한 수준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정경택, “카자흐스탄에서 러시아어의 지위 변화,” 『노어노문학』, 제15권, 제2호 (서울: 한국노어노문학회, 2003), p. 159.

이전까지 누리던 사회적 특권의 상실을 가져왔다. 예컨대, 많은 국가에서 새로운 공무원법과 교육법을 통해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공화국의 공식적인 국어의 지식을 필수요건으로 하고, 해당 민족어의 교육을 의무화했다.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어 사용자에 대한 법적 차별과 불평등이 언어 권리에 저촉되며, 다양한 인종 분쟁의 원인이 된다고 주장한다.

### 3. 러시아어 정보 공간 감소

어떤 언어의 국제적 위상을 결정하는 데에는 사용자의 수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는데, 언어 사용자의 수는 그 언어로 이루어진 정보망, 정보공간(информационное пространство)의 증가에 달려 있다. 정보 공간이란 교육 공간과 미디어 공간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오늘날 구소련 지역에서는 러시아어 사용 학교와 러시아어 미디어, 러시아어로 간행되는 서적의 양이 점차 줄고 있다.

20세기 후반은 러시아 문화와 러시아어가 전 세계에 확산되던 시기이다. 여기에 가장 큰 공을 세운 것은 소비에트 교육체계라고 할 수 있다. 1989년과 1990년 사이에만 소비에트의 다양한 민간기관, 군기관, 당기관 등에서 18만 명의 외국인이 러시아어로 교육 받았다. 이외에, 1960년에서 1991년 사이, 소비에트의 경제, 기술 원조로 구소련의 각 지역에는 66개의 고등교육기관, 23개의 중등교육기관, 400개의 직업기술교육센터, 5개의 일반학교가 개설되었다.<sup>16)</sup> 소비에트는 이 모든 교육기관에 교육시설과 교재를 지원했으며, 숙련된 교육 전문가를 통해 교육 체계를 조직했다.

탈소비에트 시기에도 러시아어의 위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러시아어 사용 교육기관과 그곳에서 교육 받는 학생의 수이다. 그러나 오늘날 벨라루스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구소련 공화국에서 러시아어 사용 교육기관의 수는 크게 줄었으며, 러시아어 사용 교육과 러시아어 학습은 때로 극렬한 정치적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2004년 탈소비에트 지역에서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16) Арефьев, Указ. соч.

교육기관의 수는 1990년에 비해 1/3로 줄어, 7,536개만이 남았다.<sup>17)</sup> 심지어 국민 상당수가 러시아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우크라이나에서도 러시아어 사용 학교의 수를 줄이고, 전체 교육기관 중 러시아어 사용 교육기관이 85%를 차지하는 크림 자치구에서도 이들 학교를 없애고자 한다.

2004년 CIS와 발트 3국에서 외국어로서 러시아어를 배우는 사람의 수는 1987년에 비해 약 5백만 명이 감소한 1천만 명 가량이었다. 게다가 민족어 수업 시간의 증가에 따른, 러시아어문학 수업 시간의 지속적인 감소, 필수과목에서 러시아어 과목의 배제로 인해 이들 러시아어 학습자의 실질적인 구사능력도 대단히 낮다. 또한 숙련된 러시아어문학 교사와 교재의 부족도 이러한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예컨대,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우즈베크어문학의 수업 시간이 크게 증가했고, 우즈베크어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필수과목으로 정해져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sup>18)</sup> 타지키스탄에서도 독립 이전까지 교육기관에서 교육 언어는 타지크어, 러시아어, 우즈베크어, 키르기스어였으나, 독립 이후 타지크어가 국어로 규정됨으로써 러시아어를 제1의 교육 언어로 사용했던 초등학교들부터 타지크어 교육이 강화되었고 타지크어문학 시간이 증가했으며, 상대적으로 러시아어 비중은 그만큼 줄어들게 되었다.<sup>19)</sup>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는 많은 사범대학에서 러시아어문학과를 폐쇄함에 따라 러시아어문학 교사를 양성하는 기관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 몰도바에서도 러시아어로 교육하는 취학 전 교육기관, 초등, 중등, 고등 교육기관의 수가 현저히 줄었다. 2002년 몰도바에서는 1,499개의 학교 가운데 369개의 학교만이 러시아어로 교육했다.<sup>20)</sup>

구소련공화국에서 러시아어 정보 공간의 지속적인 감소는 교육 분야뿐 아니라, 러시아어 미디어의 축소에서도 나타난다. 물론 아직까지도 러시아어 미디어는 몇몇 구소련 공화국에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러시아어 TV 프로그램은 많은 구소련 공화국 주민이 시청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에서는

17) Арефьев, Указ. соч.

18) 정경택, “우즈베키스탄에서 러시아어의 지위 변화,” p. 55.

19) 정경택, “중앙아시아에서의 러시아어의 지위 변화 연구(타지키스탄의 경우),” p. 121.

20) <http://dipkurier.narod.ru/glavdip/doklad2.htm> (검색일: 2011.01.10)

1,700여 개 인쇄물 중 70% 이상, 120개 인터넷 미디어 중 80% 이상이 러시아어로 간행된다. 아르메니아에서도 러시아의 OPT, РТР, НТВ, ТВС Москва, Муз-ТВ 등이 방영되고, Маяк, Голос России, Русское радио와 같은 라디오 방송도 청취된다.<sup>21)</sup> 하지만 여러 국가에서 대중 매체의 인쇄물은 물론 인터넷을 통한 전자정보 영역에서도 러시아어 사용이 이전에 비해 점차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라트비아에서는 러시아어 전용 라디오 방송국이나 TV 채널이 없으며, 라트비아 법에 따라 허용된 범위에서만 러시아 방송이 방영되고 있다.<sup>22)</sup>

그런데 이처럼 러시아 정보 공간의 전반적인 위축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몇 CIS 국가에서 러시아어 학습 수요가 차츰 증가하고 있다. <Наследие Евразии> 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2008년 발트 3국을 제외한 많은 CIS 국가에서 러시아어 학습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진 곳이 타지키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이다. 이들 국가에서 조사 응답자 50% 안팎이 러시아어가 아직도 민족 간 소통어의 기능을 갖고 있으며, 직장과 일상 영역에서 러시아인들과 대화하기 위해서도 러시아어 학습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sup>23)</sup>

실제 CIS 국가에 소재한 많은 러시아어 사용 학교의 학생 집단은 다민족성을 띤다. 예컨대, 그루지야 러시아어 사용 학교의 학생 3만 2천명 가운데 러시아인은 7천명이 채 되지 않으며, 나머지 2만 5천명은 그루지야 가정의 아이들이다. 라트비아의 러시아어 사용 학교에서 러시아인은 전체 학생의 76%를 차지하고, 우크라이나와 카자흐스탄의 러시아어 사용 학교에서도 러시아인 학생은 50% 정도이다.<sup>24)</sup>

최근 러시아어 학습 수요 증가의 중요한 원인은 러시아의 상대적인 경제적 우월성이다. 많은 CIS 국가 국민이 러시아에 근로 이주를 희망하며, 이를 위해서는 러시아어 구사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여전히 CIS

21) <http://dipkurier.narod.ru/glavdip/doklad1.htm> (검색일: 2010.01.10)

22) 한용, “구소련 지역에서의 러시아어의 위상과 그 전망,” p. 61.

23) К.Гаврилов, Е.Козиевская, Е.Яценко, “Русский язык в новых независимых государствах: текущее состояние и перспективы” <http://www.eurasianhome.org/xml/t/expert.xml?lang=ru&nic=expert&pid=1726> (검색일 2011.01.27).

24) Арефьев, Указ. соч.

국가 중에서 가장 소득이 높다. 2006년부터 러시아에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 수는 100만 명을 넘어섰는데, 불법체류자까지 포함한다면 이들의 수는 4~6백만 명 가량 될 것으로 추정한다. 이 가운데 탈소비에트 국가 출신은 전체의 2/3가량을 차지하는데,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다.<sup>25)</sup> 공통의 언어와 생활습관의 존재, 인구 이동의 편이성은 기회의 땅으로서 러시아에 유입되는 주변국 이민 노동자 수의 증대를 가져왔고, 러시아는 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잉여 노동력을 흡수했으며, 이들의 수입이 자국으로 송금됨으로써 역내 각국 경제의 불안정성을 약화시켰다는 것은 과장된 평가가 아니다.<sup>26)</sup>

#### 4. 러시아 연방 내 민족어의 도전과 인구 감소

러시아어에 대한 위협은 비단 러시아연방의 바깥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러시아와 같은 다민족 국가에서 공통의 국어는 국가의 정체성, 원활한 행정과 통치에 매우 중요하다. 그리하여 공통된 국어로서 러시아어의 공고한 지위는 국가의 언어 안보(лингвистическая безопасность)와 직결된다.<sup>27)</sup> 러시아연방은 2005년 ‘러시아연방의 국어법’을 통해 러시아어를 국어로 지정했으나, 동시에 소수 민족의 독립 열망을 무마하기 위해 러시아연방을 이루는 주체 중 가장 큰 단위인 21개 공화국이 러시아어 외에 민족 고유어를 공화국의 국어로 규정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각 공화국에서는 러시아연방 국어와 공화국의 국어가 동등하게 국어의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밝힌 공화국 헌법과 언어법 등의 규정에 따라 두 개의 국어가 존재하는 특수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sup>28)</sup> 러시아 중앙정부는 몇몇 연방 주체들이 민족어를 부각시키며, 러시아어를 점차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결국 ‘민주주의로의 이행’(демократический транзит)을 가장한 독립 열망의 표현이라고 보고 있다.<sup>29)</sup>

25) Е.Тюроканова, “Трудовая миграция в Россию,” *Демоскоп Weekly*, No. 315-316 (1-20.01.2008).

26) 신범식, “러시아의 스마트파워 외교전략과 한·러 관계,” 박영준 외, 『한국의 스마트파워 외교전략』 (서울: 한울, 2009), pp. 175-176.

27) Халеева, Указ. соч.

28) 정경택, “러시아연방에서 러시아어의 위상.”

또한 인구의 감소도 러시아어의 위상을 약화시키는 위협 요인이다. 2002년 도 러시아 인구조사에 따르면, 러시아연방의 1억 4천 520만 명 인구 가운데 약 1억 4천 3백만 명이 러시아어를 구사했다. 반면 2010년 인구조사의 잠정 집계 결과 러시아연방의 인구는 1억 4천 3백만 명으로 8년 사이 약 220만 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sup>30)</sup> 러시아 정부는 2013년 러시아연방 인구가 1억 3천 7백만 명으로, 2016년에는 1억 2천 9백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는 자연스럽게 러시아어 사용자 수의 감소로 이어진다.<sup>31)</sup> 특히 더욱 심각한 것은 전체 인구 대비 러시아 민족의 인구 감소다. 러시아 민족은 러시아어와 러시아 문화의 주요 사용자이기 때문이다. 1989년 전체 인구 대비 러시아 민족의 비율은 81.5%였는데, 이 수치는 2002년에 79.8%로 떨어졌다. 그러나 해외 전문가들은 실상 러시아 민족의 비율이 이보다 더 낮을 것으로 전망한다.<sup>32)</sup>

## 5. 언어 내적 위협요소: 러시아어 규범 약화

오늘날 러시아어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규범의 약화는 러시아 사회의 큰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규범의 약화는 러시아어의 여러 층위에서 나타나지만, 특히 차용어와 비속어의 확산 등 어휘 분야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sup>33)</sup> 규범의 약화는 20세기 말 러시아 사회의 특징과 연관지을 수 있다. 정치적 다극화, 소유의 양극화는 커뮤니케이션에서 감정성, 공격성의 증가 원인이 되었다. 스테르닌에 따르면, 러시아 체제 이행기에 나타났던 정치적, 경제적 불안정, 낮은 생활수준, 인플레이, 실업 등은 러시아인에게 큰 스트레스를 안겨주었다.<sup>34)</sup> 그러한 환경에서 화자로서 ‘나’는 좀 더 공격성을 띠게

29) Халева, Указ. соч.

30) 러시아 정부는 2010년 인구조사의 잠정 집계 결과를 정부기관지인 로시스카야 가제타에 게재했다. <http://www.rg.ru/2011/03/27/perepis-rosstat-site.html>

31) Тюроканова, Указ. соч.

32) “이주민의 국가 러시아: 인구의 위기인가? 인종의 위기인가?”(Россия иммигрантская: демографический кризис или этнический)라는 기사에서 Ben Judah는 2002년 인구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러시아연방의 전체 인구 대비 러시아 민족의 비율은 실상 약 73% 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http://www.inosmi.ru/social/20101027/163879444.html> (검색일: 2011.01.17)

33) К.К.Колин, “О роли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в сохранении единого информационн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России,” *Информационное общество*, вып. 6 (1996)

34) И.А.Стернин, “Социальные факторы и развитие современного русского языка,” *Теоретическая и*

되고, 이로 인해 높은 언성, 담화의 감정성, 비속어의 사용, 거친 표현 사용의 증가, 언어예절 규칙의 무시 등이 나타났다.

언어 규범의 약화에는 미디어의 책임도 크다.<sup>35)</sup> 탈소비에트 시기 정치적 검열의 폐지는 언어적 검열의 폐지를 불러왔고, 개혁, 개방, 사회의 민주화와 함께 TV, 라디오, 신문 등 각종 대중매체에 거리 집회, 의회의 격정적이고 정제되지 않은 즉흥적 언어가 물밀듯 침투했으며, 대중매체는 이 공격적이고 무례한 언어를 그대로 반영하고, 확산하여, 결과적으로는 일상어의 범주에 편입시키게 되었다.<sup>36)</sup>

오늘날 이들 비규범적 어휘들은 대다수 러시아어 사용자에게 의해 다양한 문체와 장르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으며, 별도의 설명이나 표준어로 ‘번역’이 요구되지도 않는다.<sup>37)</sup> 이러한 현상에 주목한 많은 학자들은 공통 은어(общий жаргон)의 발생을 지적했다.<sup>38)</sup> 공통 은어란 비공식적 상황에서 표준어 사용자들에 의해 폭넓게 사용되는 은어를 가리킨다.

차용어의 확산에도 여러 원인이 있다. 일반적으로 차용어의 사용은 해당 개념이 언어 사용자의 모국어에 없는 경우나 화자가 특별한 문체적 효과 또는 자신의 주관적 평가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용한다. 즉 러시아어에서 차용어의 사용은 상응하는 러시아어 어휘가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후자의 경우, 기술, 경제, 정보 등 전문분야의 특수 용어가 대부분이다(예: секьюритизация, истэблишмент, резистор, чип, мемори стик,

*прикладная лингвистика*, вып. 2. Язык и социальная среда (2000), стр. 7.

35) М.Л.Ремнева, “Язык и культура,” *Русский язык: исторические судьбы и современность: II Международный конгресс исследователей русского языка. Труды и материалы* (Москва, 2004), стр. 23; О.Б.Сиротинина, “Положительные и негативные следствия двадцатилетней свободы русской речи,” *Проблемы речевой коммуникации*, вып. 8 (2008), стр. 11.

36) 2010년 Title Popularity Ranking(TPR)에서 시행한 러시아 대중매체의 인기도 조사를 보면 현재 러시아 대중매체 가운데 타블로이드 형식의 신문들이 가장 인기 있고 영향력 있는 대중매체 중 상위 3개(1위: Аргументы и факты; 3위: Комсомольская правда; 4위; Московский комсомолец)를 점유하고 있다. 즉 러시아 대중은 전통적으로 대중매체에서 기대해왔던 비교적 바른 언어 표현들을 유지하는 매체보다 더 자유로운 언어를 구사하는 타블로이드판 신문들을 선호하고 있다. 이러한 매체에서 은어는 훨씬 더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러시아인들의 언어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 <http://www.exlibris.ru/ru/stats/tpr.html> (검색일:2010.12.18)

37) В.Г.Костомаров, *Языковой вкус с эпохи. Из наблюдений над речевой практикой современных масс-медиа* (Москва, 1994), стр. 63.

38) О.П.Ермакова, Е.А.Земская, Р.И.Розина, *Слова, с которыми мы все встречались. Толковый словарь русского общего жаргона* (Москва, 1999).

роуминг). 여기에 서구어, 특히 영어에서 차용된 어휘가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는 해당 분야에서 미국과 미국 기업의 선도적 위치 때문이다.

상응하는 러시아어 어휘가 있는 경우에도 차용어는 순수 러시아 어휘를 압도한다(예: стагнация - застой; консенсус - согласие; имидж - образ; саммит - встреча в верхах; паблисити - реклама; мониторинг - наблюдение; спонсор - меценат; рейтинг - авторитет; эксклюзивный- исключительный). 여기에는 차용어의 특별한 문체적 효과나 화자의 주관적 평가 외에도 시대의 언어 유행과 서구 지향성(вестернизация)이 드러난다. 러시아어의 서구화에도 미디어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특히 젊은이를 대상으로 하는 TV나 라디오 프로그램, 신문, 잡지가 더욱 그러하다. 코스토마로프는 모든 극단적인 언어 유행, 단정치 못한 언어 표현은 민족어를 훼손하고, 위대한 작가들의 아름다운 러시아어 수준을 격하시킨다고 주장한다.<sup>39)</sup> 그러나 오늘날 연구자들은 2005년에 <러시아연방 국어법>이 제정된 이후, 대중매체 언어의 점차적인 순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한다.<sup>40)</sup>

정리하면, 오늘날 러시아어는 탈소비에트 공간에서 러시아어의 법적 지위 하락, 러시아어 정보 공간의 감소, 러시아연방 내 민족어의 도전, 인구의 감소, 러시아어 규범의 약화 등 다양한 도전을 받고 있다. 특히 탈소비에트 지역의 러시아어 이탈 경향이 심화되고 있는데, 러시아어를 국가어로 지정한 벨라루스만을 제외하고, 탈소비에트 지역 대부분에서 러시아어는 소수민족어로 위상이 바뀌었고, 경제, 행정, 미디어, 정보, 교육 등 중요한 사회 활동 영역에서 부차적인 언어가 되고 있으며, 점차 영어에 밀려 제2외국어가 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러시아 정부로 하여금 획기적인 언어정책의 시행을 촉구하였다.

39) Костомаров, Указ. со., стр. 62.

40) Н.Е.Петрова, Л.В.Ращибургская, *Язык современных СМИ. Средства речевой агрессии* (Москва, 2011), стр. 13.

### Ⅲ. 러시아 정부의 러시아어 확산 정책

러시아 정부는 오늘날 탈소비에트 공간을 비롯하여 러시아어가 대내외적으로 처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러시아어의 위상을 지키고, 러시아어를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주요 대상은 무엇보다도 근외(ближнее зарубежье) 지역에 남은 러시아인 동포들이다. 러시아 정부는 해외 거주 자국민이 민족어 정책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고 러시아어의 위상을 다시 세우기 위해 동포지원정책(Политика по поддержке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за рубежом)을 시작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동포지원정책 가운데 러시아어와 관련된 정책만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밖에 러시아 정부는 연방정부 프로그램 <러시아어 2002년~2005년>, <러시아어 2006년~2010년>을 실행하면서 지속적으로 러시아어의 확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에는 연방정부프로그램 <러시아어 2011년~2015년>이 공표되었다.

#### 1. 동포 지원 정책

1991년 소련 해체 이후 대다수 구소련 공화국들은 자국의 자주권 회복의 일환으로 민족어를 국어로 지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소비에트 사회에서 특권을 누리던 러시아어 사용자는 역차별을 받게 되었다. 러시아 동포 지원정책의 시작은 보리스 옐친 대통령 때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1994년 11월 “해외 거주 러시아인에 대한 러시아 연방 정책의 주요 방향”(Об основных направлениях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литики РФ в отношении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проживающих за рубежом)을 발표했고, 1995년 9월 “CIS 국가에 대한 러시아 연방의 전략”(Стратегический курс РФ по отношению к странам СНГ)을 공표했다. 또한 1994년 러시아연방 대통령 행정실 산하에 해외동포전담 정부위원회(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ая комиссия по делам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за рубежом)가 발족되었다. 이 위원회는 동포 지원정책을 수행하는 연방정부 기구들의 업무를 기획하고 국가 기관

에 정책을 발의하는 단체이다. 현재 외무부 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 1996년에는 발트 3국에 거주하는 러시아인에 대한 지원정책을 강조하는 러시아 연방의 정치적 개념(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Ф от 15 июня 1996 г. N 909 “Об утверждении Концепц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национальной политики РФ”)이 인준되었다.

이후 블라디미르 푸틴 전 대통령은 동포 지원정책에 더욱 역점을 두었으며, 이는 러시아연방 정부의 재정 지원 증가에서 잘 나타난다.<sup>41)</sup> 동포 지원정책의 강화 배경은 위에서도 언급한 바 있는 ‘루스키 미르’ 이념이다. ‘루스키 미르’는 해외 러시아 동포를 결집하고, 나아가 러시아어문화에 관심 있는 모든 외국인들을 아울러서,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연방의 영향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리하여 2005년 2월 러시아 정부는 ‘대외지역문화교류국’(Управление по межрегиональному и культурному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с зарубежными странами)이라는 기구를 발족했다.

또한 러시아 외무부는 동포 지원정책 유관 기관들의 업무를 조정한다. 러시아 외무부는 러시아 동포정책의 실현과 관련된 모든 기관, 즉 러시아 교육부, 문화부, 미디어, 언론, 푸시킨 러시아어연구소, 러시아어문학교사 국제협의회(МАПРЯЛ) 등 다양한 기구들의 기능을 조정한다. 물론 이러한 조정과 계획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러시아 동포, 러시아어 화자의 권리 옹호이다. 러시아 외무부는 동포의 권익 수호가 그들의 거주 지역에서 러시아어 사용 영역 유지, 확장과 매우 긴밀한 관계에 있다고 본다.<sup>42)</sup> 또한 러시아어의 확산은 러시아 정부가 추구하는 인도주의적 외교(humanitarian diplomacy), 공공 외교(public diplomacy) 노선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며, 나아가 러시아 소프트 파워의 중요한 자산이라고 인식한다.

41) 2000년 해외 동포 지원 정책에 소요된 예산은 5천만 루블이었고, 2005년에는 3억 420만 루블로 증가했으며, 2007년에는 3억 567만 루블에 달했다. Lerhis, op. cit., p. 40.

42) 2007년 ‘러시아어의 해’(Год русского языка) 행사의 일환인 러시아어문학교사 국제협의회(МАПРЯЛ) 의회에서 러시아외무부 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해외에서 러시아어의 위상 강화는 러시아 외무부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이며, 러시아의 이해 실현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http://www.izbrannoe.ru/14052.html>). 푸틴 전 대통령도 러시아어의 보존과 확산이 러시아 사회의 통합과 CIS 국가의 통합, 그리고 러시아가 세계 경제, 정치, 문화, 교육 공간으로 편입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연방대통령령 2005년 1월 4일. № Пр-22).

러시아 중앙정부 외에 모스크바 정부도 러시아어 관련 해외 동포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1999년 모스크바 시의회는 ‘모스크바 시장 장학금’을 통해 CIS와 발트 지역에서 러시아어 교육사업을 지원하였다. 최근에는 ‘2009년~2011년 러시아 해외 동포에 대한 국가 정책 실행 프로그램 주요 개념’(Концепция Комплексной целевой среднесрочной программы осуществлен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литики в отношении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за рубежом на 2009-2011 годы)을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에는 러시아 동포단체 지원, 해외에서 러시아어와 문화의 유지, 확산을 위한 다양한 행사 개최, 해외 러시아어 미디어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 2. 러시아연방정부 프로그램 <러시아어>

### 2.1 제1차 연방정부 프로그램 <러시아어 2002년~2005년>

2001년 7월 러시아연방 정부는 연방정부 프로그램 <러시아어 2002년~2005년>을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의 주요 기획 기관은 러시아연방 교육부, 이민국, 러시아 학술원, 모스크바 국립대학 등이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러시아어의 정신적, 예술적, 학술적, 문화적 지위 보존이며, 이에 따른 주요 과제는 러시아 연방 국어로서, 러시아 민족의 민족어로서 러시아어의 발전과 확산, 러시아와 CIS 국가, 발트 3국의 국제적 소통어로서 러시아어의 지위 강화, 국제 사회에서 러시아어의 영향력 확산, 러시아어 교수법 개발, 대중매체를 통한 러시아 언어와 문화의 확산 등이다. 프로그램의 실행기간은 2002년에서 2005년이고, 총 재정 규모는 1억 6518만 루블이다.

이 프로그램의 구체적 사업은 학술연구사업과 기타 사업으로 나뉜다. 학술연구사업은 다시 러시아연방의 국어로서 러시아어, 러시아 민족의 민족어로서 러시아어, 세계어로서 러시아어 등 세 부분으로 나뉜다. 기타 사업에는 러시아어 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세미나, 러시아어문학 교재 개발, 대중매체를 통한 러시아어 선전 등이 포함된다. 그리하여 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언어정책 관련 국제협의회, 언어정책 강국인 프랑스와의 정책 교류를 위한

세미나, 해외에서 러시아어 올림피아드 등의 행사가 개최되었고, 해외 러시아어 학습자를 위한 새로운 교재가 개발되고, 러시아어 방송과 라디오 채널 개설이 준비되기 시작했다.

또한 러시아 정부는 이 프로그램의 실행을 통해 민족 간 소통어로서 러시아어의 역할 분석, 새로운 러시아어 교재와 교수법 개발, 탈소비에트 공간에서 러시아어의 위상에 대한 정확한 분석, 기타 다민족 국가에서 언어정책 분석, 현대 러시아어의 사전, 문법체계 정비, 외국인을 위한 러시아어 교육과정 개설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평가한다.

## 2.2 제2차 연방정부 프로그램 <러시아어 2006년~2010년>

2006년 러시아연방 정부는 제2차 연방 프로그램 <러시아어 2006년~2010년>을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러시아연방 국어로서, 민족 간 소통어로서 러시아어의 기능 실현을 위한 제반 조건 마련인데, 이는 궁극적으로 러시아연방의 안보 확립, 위상 제고, 통합 구축과 CIS 국가들의 통합 과정 촉진,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공간에서 러시아 연방의 위상 확립을 위한 것이다. 즉 여기에는 러시아 정부가 러시아어의 확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 잘 나타나 있다.

프로그램의 실행을 위한 구체적 과제로서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 연방 내의 전략적 과제와 해외에서의 전략적 과제를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먼저 러시아 연방 내의 전략적 과제로는 러시아연방의 국어로서의 효율적인 기능 실현, 러시아연방 내 민족 간 소통어로서 러시아어의 지위 향상, 러시아 민족어로서 러시아어의 발전을 위한 조건 마련이다. 반면 해외에서의 전략적 과제로는 CIS 지역 통합 촉진의 기초로서 러시아어의 효과적 기능 지원, 발트 3국에서 러시아어 지원, 러시아연방과 해외에서 러시아 언어와 문화의 확산 및 학습 지원, 해외 거주 러시아 동포의 언어적,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한 제반 기반 마련 등이 있다. 프로그램의 실행 기간은 2006년에서 2010년이고, 총 재정 규모는 13억 루블이다.

1차 프로그램처럼 이 프로그램의 구체적 사업은 학술연구사업과 기타 사업

으로 나뉜다. 학술연구사업으로는 대중매체에서 러시아어 사용 표준안 연구, 러시아연방 국어로서 러시아어 기능 위협 요인과 대안 준비, 국어로서 현대 러시아어의 언어 모델 준비, CIS와 발트 국가에서 러시아어의 위상과 사용 연구, 해외 러시아 동포들의 언어, 문화 보존을 위한 방안 연구 등이 있다.

기타 사업에는 러시아연방의 시민권 획득 희망자를 위한 러시아어 시험 시스템 개선, 러시아 언어와 문화 교육을 위한 행사 개최, CIS 국가 국민들의 러시아어 학습 위성교육방송채널 지원, CIS 및 발트 국가 이용자들의 요구에 기초한 러시아어 인터넷 포털 사이트 지원, CIS 및 발트 국가, 해외에서 러시아어 지위 향상을 위한 행사, 외국인들을 겨냥한 러시아 문화 포털 구축, 러시아어 문학교사 국제회의가 주관하는 21세기 러시아어의 상황에 대한 국제회의 개최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러시아 정부는 탈소비에트 공간에서 러시아어의 위상과 언어상황, 교수법 연구, 실용 교재, 인터넷 교육 포털사이트 개발, 해외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러시아 언어·문화 소개 TV, 라디오 채널 개설, 러시아 동포의 모국어 학습 방안 및 교과과정 표준안 마련, 해외 러시아 학술센터 시설 정비, 대중매체를 위한 러시아 표준어 사용안 마련, 러시아연방 시민권 획득 희망자들을 위한 러시아어 구사력 측정 기준 설정, 러시아연방의 민족 간 소통어로서 러시아어의 기능 실현에 위협 요소 예측과 이에 대한 대안 마련 등을 기대한다.

### 3. 러시아어 확산 담당 기구

현재 러시아에서 러시아어 확산 정책을 담당하는 기구는 국제인도적협력청(Россогрудничество)와 <루스키 미르>(Русский мир) 재단이다. 언어와 문화 보급에 앞장서고 있는 <루스키 미르> 재단이 민간부문 공공외교의 첨병이라면, 국제인도적협력청은 정부 차원의 공공외교 주무기관이다. 이러한 노력은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나 ‘Freedom House’ 등과 같은 미국의 NGO들이 어떻게 미국의 소프트 파워 프로젝트에 도움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시작된 것이며, 탈소비에트 공간에서 친 러시아 세력을 형성하기

위한 전략에서 비롯된 것이다.<sup>43)</sup>

### 3.1 국제인도적협력청(Россотрудничество)

국제인도적협력청(이하 국제협력청)은 2008년에 공식 출범했지만, 그 뿌리는 전연방국제문화교류협의회(ВОКС: Всесоюзное общество культурной связи с заграницей), 소련국제우호 및 문화교류협회 연합(ССОД: Союз советских обществ дружбы и культурной связи с зарубежными странами), 러시아연방 외교부 산하 러시아 국제 학문 및 문화협력센터(Росзарубежцентр: Российский центр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научного и культур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при Министерстве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에 두고 있다.<sup>44)</sup>

국제협력청은 CIS 관련 업무, 재외동포 지원, 국제 인도주의 협력을 담당하지만, 가장 중요한 업무는 러시아의 공공외교를 총괄하는 것이다. 국제협력청은 현재 49개국에 54개 러시아 학술문화원(Российский центр науки и культуры)을 개설했으며, 23개국에 대표를 파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러시아 학술문화원이 아직 개설되어 있지 않지만, 대표는 파견되어 있다.

국제협력청의 활동 영역은 러시아의 긍정적 이미지 생성, 외국에서 러시아어와 러시아 문화 증진이며, 각종 행사를 통해 러시아 문화 자산을 전파하는 등 문화 보급의 진지 역할을 맡고 있다. 특히 국제협력청은 연방프로그램 <러시아어 2006년~2010년>의 기획과 실행에 적극 참여했으며, 제3차 연방프로그램 <러시아어 2011년~2015년>을 기획하는 데에도 참여하고 있다. 또한 국제협력청은 민족우호대학, 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 푸시킨 러시아어연구소, 모스크바 국립 언어대학, 러시아어문학교사 국제협의회 등과 협력관계를 통해 해외에서 다양한 러시아어 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다.

유사한 기관인 영국의 브리티시 카운슬(British Council)이나 독일의 괴테 인스티튜트(Goethe Institut)가 장기적인 문화교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데

43) “Softer Russian Power,” <http://www.newsweek.com/2008/05/31/softer-russian-power.html> (검색일: 2010.02.11)

44) 엄구호, “러시아의 공공외교와 한국 내 러시아 문화원 개설,” 『Russia-CIS Focus』, 제97호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2011).

반해, 이곳은 정책홍보 및 경제협력 지원까지 아울러 담당하는 그야말로 전방위적 국가 홍보 및 문화·경제·과학 교류 기관이다. 그리하여 국제협력청은 해외에서 러시아 교육기관의 홍보도 진행하고 있으며, 러시아 교육기관을 졸업한 세계 각지의 동문들을 모아 동문회를 개최하기도 한다. 2006년에는 범아시아 동문회가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렸다.

또한 국제협력청은 러시아 주변 국가와의 교류 협력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2006년에는 중국의 각 도시에서 대규모 ‘러시아의 해’ 행사를 개최해 러시아 알리기에 대대적으로 나섰다. 1년 동안 영화제, 미술전시회, 학교 간 교류행사 등을 열며 문화, 교육, 경제, 과학 분야에서 무려 1,500여 개의 이벤트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중국 신문이나 TV 보도에서 러시아 관련 기사가 15배 이상 증가했다. 이러한 대대적인 국제교류, 국가홍보, 러시아어 강화 작업은 궁극적으로 CIS, 동유럽 및 아시아 지역에서 러시아의 주도권을 확고히 다지겠다는 대외정책의 연장선이다.

### 3.2 재단 <루스키 미르> (Фонд <Русский мир>)

<루스키 미르> 재단은 2007년 6월, 러시아 언어와 문화 보급의 필요성을 절감한 푸틴 대통령의 ‘루스키 미르 재단 설립을 위한 러시아연방 대통령령’에 의해 설립되었다. 러시아 외교부와 교육과학부가 재단 설립에 참여하고, 재단 기금은 연방 예산과 기부금 등으로 구성된다. 재단은 해외에 러시아 센터를 개설하고 연구비와 행사비를 지원하면서 러시아어와 러시아 문화 확산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루스키 미르> 재단의 명칭은 이 재단이 러시아 언어와 문화의 대외 선전활동의 대상을 누구로 설정했는지 잘 보여준다. 앞서 ‘루스키 미르’ 이념이 러시아 동포뿐 아니라, 러시아어와 문화에 관심이 있는 모든 외국인을 포함한 것처럼, <루스키 미르>의 활동 대상도 이들 모두를 포괄한다. <루스키 미르>의 기능은 러시아어의 단순한 전파를 넘어서, 러시아와 관련된 세계의 정치, 민족, 사회, 종교, 이데올로기, 문화 등 다양한 면면을 러시아어라는 매개를 통해 통합하고자 한다. 이러한 포부는 곧 러시아어를 러시아가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언어, 곧 영어와 같은 국제어의 지위로 올리고자 하는 러시아 정부의 의도를 반영하는 것이다.<sup>45)</sup>

이에 따라 재단은 해외에서 러시아어를 가르치는 교육기관과 단체들에 대한 지원, 러시아에 대한 긍정적 국가 이미지 창출, 러시아에 대한 지식 전파, 이민자와 귀향자에 대한 지원, 해외 기관들과의 협력 확대, 러시아 교육 사업 수출, 학술교류, 교수파견, 해외 러시아어 대중매체 지원, 러시아어 올림피아드 개최, 러시아 교육기관을 졸업한 외국인 학생들의 동문회 지원, 연령별 러시아어 교수법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포괄한다. 그러나 <루스키 미르> 재단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은 러시아 센터(Русский центр)의 해외 개설이다. 현재 73개의 센터가 39개 국가에 개설되어 있다. 한국에도 3개 대학에 러시아 센터가 개설되어 있다. 러시아 센터 외에 러시아 캐비닛(Русский кабинет)이라는 러시아 문헌 및 시청각 자료가 비치된 소규모 공간도 지원한다. 2009년 기준 14개의 국가에 25개의 러시아 캐비닛이 개설되었다.

이밖에 러시아 언어, 문화 관련 학술연구비, 행사지원비 등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지원한다. 또한 루스키 미르는 “Русский мир.ru”라는 잡지를 발행하고, 방송을 통해 러시아어와 문화에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08년부터 러시아정보채널(Российский информационный канал)의 프로그램 “Вести”와 라디오 프로그램 “Голос России”에 재단 관계자와 사회 저명인사, 학자, 문화계 인사들이 출연하여 <루스키 미르> 재단의 활동, 러시아어의 보존과 발전 방안 등에 대해 토론을 벌이고 있다.

## IV. 결 론

러시아어는 세계 주요 언어 가운데 최근 수년간 영향력을 잃고 있는 유일한 언어이다. 오늘날 영어와 프랑스어는 영국과 프랑스의 식민통치를 받던 국가

45) 정하경, “루스키 미르, 그 언어적 관점에 대하여,” *Russia & Russia Federation*, Vol. 2, No. 1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2011).

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기억되고 있다. 독일어는 UN의 공식어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터키어도 탈소비에트 공간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사용 영역의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반면 러시아어는 소비에트 해체 직후 탈소비에트 공간을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그 영향력을 상실하기 시작했다.

러시아어의 확산은 러시아의 국가위상 제고라는 추상적 의미에서뿐 아니라, 러시아연방의 언어안보, 루스키 미르의 정체성 확립, 국제사회에서 러시아의 소프트 파워 강화를 위해 필수적이다. 러시아 정치학자 플로로프는 탈소비에트 시기 러시아의 지정학적 이해를 실현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무기는 러시아 언어와 러시아 정신문화, 즉 러시아의 소프트 파워라고 했으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탈소비에트 공간에서 러시아어 교육기관의 폐쇄를 막아야 하며, 러시아어 사용자의 권익을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46)</sup>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어가 처한 위협, 즉 탈소비에트 공간에서 러시아어의 법적 지위 하락, 러시아어 정보 공간의 감소, 러시아연방 내 민족어의 도전, 러시아어 규범의 약화 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동포정책, 1, 2차 <러시아어> 프로그램, <루스키 미르> 재단과 국제인도적협력청의 활동을 통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안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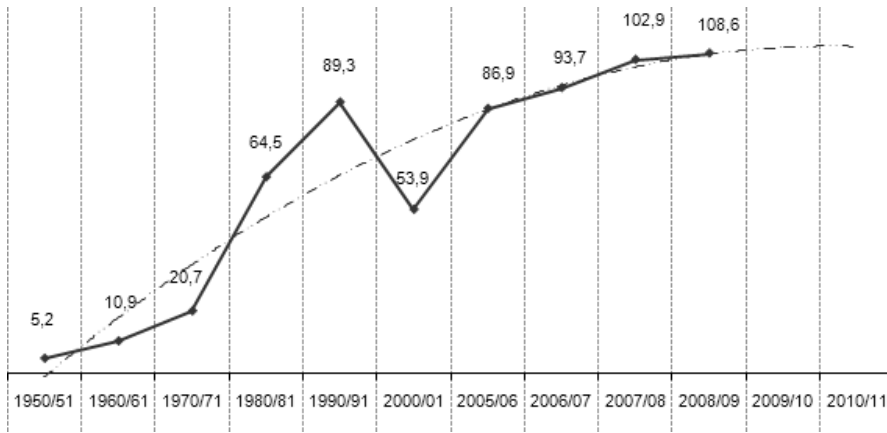
이 가운데 특히 제1차 <러시아어> 프로그램은 러시아 정부 주도의 첫 번째 러시아어 확산 정책이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은 탈소비에트 지역과 러시아연방 내에서 러시아어의 위상과 사용 상태를 점검하고, 러시아어의 규범 정비와 교수법 개발 등에 역점을 두고 있다. 제2차 <러시아어> 프로그램은 1차보다 예산과 사업규모가 훨씬 확대되고, 사업 내용도 민족어로서 러시아어, CIS와 발트 지역에서 민족 간 소통어로서 러시아어, 국제어로서 러시아어의 발전 목표에 따라 더욱 구체화, 다양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특히, 제2차 <러시아어> 프로그램의 목적과 과제는 러시아 정부가 러시아어의 확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 잘 보여준다.

러시아 정부의 언어 확산 정책이 가져온 실질적인 성과를 평가하기는 아직

46) В.Фролов, “Новое управление: принципы мягкой силы. Как России работать в СНГ,” <http://www.centrasia.ru/newsA.php?st=1113458160> (검색일: 2011.02.04)

어렵다. 다만 최근 러시아연방 교육기관의 외국인 유학생 수의 증가를 이와 같은 정책의 성과로 볼 수도 있다. 러시아 교육과학부에 따르면 2008/2009년에 러시아 고등교육기관에서 수학한 외국인 유학생 수는 173개국 출신 10만 8천 600명이다.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외국인 유학생 수는 소비에트 시절 꾸준히 증가하다가, 1990/1991년 이후 급감하고, 다시 2000년 이후로 점차 증가하기 시작했다.<sup>47)</sup>

[표 3] 1950년에서 2009년까지 러시아의 고등교육기관에서 주간 교육을 받은 외국인 유학생의 수의 변화 (단위: 천 명)



파블렌코는 탈소비에트 지역에서 러시아어의 유지와 확산을 결정하는 요인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sup>48)</sup>

- 1) 국가의 인종적, 언어적 구성: 러시아어 사용 인구의 절대 수뿐만 아니라, 전체 인구 대비 러시아어 사용 인구의 비율, 러시아화(Russification)의 정도 등도 러시아어의 유지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대표 민족 외에 많은 소수 민족이 거주하는 다민족 사회일수록 러시아어가 공용어(lingua franca)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47) A.Л.Арефьев, “Состояние и перспективы экспорта российск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 1,” <http://www.kapital-rus.ru/articles/article/179471/> (검색일: 2011.02.04)

48) A. Pavlenko, “Russian in Post-Soviet Countries,” *Russian Linguistics*, Vol. 32 (2008), pp. 75-77.

- 2) 러시아어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 언어적, 사상적 요소: 러시아어를 진보, 과학, 발전의 이미지와 결부시키는 곳에서는 러시아어에 대한 충성도가 높다. 반면 러시아어를 제정 러시아나 소비에트 압제의 상징으로 보는 지역에서는 러시아어에 대한 반감이 높다. 이밖에 민족어와 러시아어의 유형적 차이도 러시아어에 대한 태도, 사용, 유지의 정도를 결정한다.
- 3) 교육과 취업 기회: 러시아어 사용 교육에 대한 접근성과 민족어의 구사력을 요구하지 않는 다양한 취업 기회는 러시아어 화자로 하여금 자녀들을 지속적으로 러시아어 사용 학교에 취학시키는 동기를 제공한다. 반면 러시아어 사용 학교의 입학이 불가능하거나 그 학교 출신 학생들의 고등교육과 취업의 기회가 제한적일 경우, 러시아어 유지 전망은 어둡다. 러시아어가 사회 활동과 해외 취업, 이민을 위해 중요한 언어적 자원으로 여겨질 때, 탈소비에트 국가의 젊은이들은 러시아어를 계속 배울 것이다.
- 4)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문화적 정향성 및 러시아와의 관계: 러시아와의 관계가 밀접한 국가일수록, 서유럽에 정향된 국가들보다 러시아어의 유지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또한 러시아어 미디어와 정보 매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수록, 러시아어의 사용은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다.

이러한 요인 가운데 러시아 정부의 언어정책을 통해 통제될 수 있는 것은 교육과 이미지 제고를 제외하면 사실상 거의 없다. 타 국가의 인종적 구성, 유형적 친근성은 정책을 통해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러시아어 확산 정책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러시아어 교육의 위상 강화와 러시아어의 이미지 제고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러시아연방 교육 시스템의 적극적인 홍보, 러시아 학위의 국제적 인증과 위상 강화를 통한 해외 교육시장에서 러시아 교육기관의 지위 제고가 필요하다. 가까운 미래에 러시아어의 위상은 러시아가 자원 중심의 경제에서

벗어나서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수요가 많은 지식생산, 교육과 학문, 기술 서비스의 생산 구조로 이동하는 것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서 러시아 교육환경의 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다. 이밖에 해외에서 러시아어를 학습하는 외국인들의 요구를 반영한 인터넷 러시아어 학습 콘텐츠의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러시아의 국가 이미지와 러시아어의 이미지 쇄신이 필요하다. 한 언어의 이미지는 이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의 이미지, 이 언어 구사자의 국제적 위상과 밀접히 연관된다. 그러므로 기존의 무기 생산자, 혹은 자원 공급자로서 러시아의 이미지는 러시아어의 위상 제고에 큰 도움이 될 수 없다. 러시아 정부도 소비에트로부터 물려받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2005년에 영어방송 *Russia Today*를 개국한 바 있다. 크렘린이 이 방송의 창설을 결심한 것은 서방 언론이 러시아의 현실과 이미지를 왜곡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는 해외에 방대한 네트워크를 가진 비정부기구(NGO)와의 더욱 효과적인 공조가 필요하다. 더 많은 비정부기구가 러시아어의 확산에 전면적으로 나서야 하며, 이를 통해 제국주의 혹은 사회주의 잔재로서 러시아어의 이미지를 쇄신해야 한다. <루스키 미르>가 국내 3개 대학에 설치한 러시아 센터의 활동도 러시아어의 확산을 위해서는 우선 한국 대중에게 러시아의 긍정적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또한 청소년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소셜 네트워킹을 사용하여 자연스럽게 러시아어, 문화, 국가의 선전활동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셋째, 러시아어 학습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러시아 문화상품의 전 세계적 확산에 노력해야 한다. 실제 탈소비에트 공간에서 위성 TV를 통해 유포되는 러시아 대중문화는 여전히 큰 위력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러시아는 탈소비에트 공간뿐 아니라, 좀 더 넓고 다양한 지역에서 러시아 영화, 대중음악, 대중소설의 확산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이를 통한 러시아의 문화적 영향력 강화는 러시아와 러시아어에 더욱 큰 매력을 부여할 것이다.

넷째, 미디어 언어는 대중의 언어 사용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대중매체에서 사용되는 러시아어를 심의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언어정책의 강국 프랑

스에서는 1975년 “프랑스어 사용에 관한 법”(바-로리올 법), 1994년 “프랑스어 사용에 관한 법”(투봉 법)을 제정했다. 이 법에 따라 대부분의 방송 프로그램은 프랑글레의 사용을 자제하는 등 정제된 프랑스어를 구사해야 하며, 이 법을 어기면 벌금을 비롯한 많은 규제를 당한다.<sup>49)</sup> 러시아 정부도 이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 2차 연방 프로그램 <러시아어>가 미디어 러시아어의 표준안을 개발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기는 했지만, 좀 더 실질적이고, 강제성을 띤 조치가 필요하다.

---

49) 김진수, 『프랑스의 언어정책』 (부산: 부산대학교출판부, 2007), pp. 107-115.

## 참고문헌

- 김진수. 『프랑스의 언어정책』. 부산: 부산대학교출판부, 2007.
- 신범식. “러시아의 스마트파워 외교전략과 한-러 관계.” 박영준 외. 『한국의 스마트파워 외교전략』. 서울: 한울, 2009.
- 엄구호. “러시아의 공공외교와 한국 내 러시아 문화원 개설.” 『Russia · CIS Focus』, 제97호.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2011.
- 정경택. “카자흐스탄에서 러시아어의 지위 변화.” 『노어노문학』, 제15권, 제2호. 서울: 한국노어노문학회, 2003.
- 정경택. “중앙아시아에서의 러시아어의 지위 변화 연구(타지키스탄의 경우).” 『슬라브어연구』, 제9권. 서울: 슬라브어학회, 2004.
- 정경택. “우즈베키스탄에서 러시아어의 지위 변화.” 『슬라브어연구』, 제11권. 서울: 슬라브어학회, 2006.
- 정경택. “러시아어의 국제적 위상 변화 (크르그즈 공화국의 경우).” 『슬라브어연구』, 제12권. 서울: 슬라브어학회, 2007.
- 정경택. “아제르바이잔에서의 언어 상황 변화 연구.” 『슬라브어연구』, 제14권, 제2호. 서울: 슬라브어학회, 2009.
- 정경택. “러시아연방에서 러시아어의 위상.” 『Acta Russiana』, 제3호. 서울: 고려대학교 러시아CIS연구소, 2011.
- 정하경. “루스키 미르, 그 언어적 관점에 대하여.” *Russia & Russia Federation*, Vol. 2, No. 1.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2011.
- 한 용. “구소련 지역에서의 러시아어의 위상과 그 전망.” 『동유럽발칸학』, 제8권, 제2호. 서울: 동유럽발칸학회, 2006.
- Арефьев, А.Л. “Сколько людей говорят и будут говорить по-русски?” *Демоскоп Weekly*, No. 251-252 (19.06-20.08.2006).
- Арефьев, А.Л. “Состояние и перспективы экспорта российск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 I”. <http://www.kapital-rus.ru/articles/article/179471/> (검색일: 2011.02.04)
- Березин, Ф.М. “Место и роль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в постсоветской России.” *Теория и практика общественно-научной информации*, вып. 13 (1997).

- Гаврилов, К., Козиевская, Е., Яценко, Е. “Русский язык в новых независимых государствах: текущее состояние и перспективы.” <http://www.eurasianhome.org/xml/t/expert.xml?lang=ru&nic=expert&pid=1726> (검색일: 2011.01.27)
- Ермакова, О.П., Земская, Е.А., Розина, Р.И. *Слова, с которыми мы все встречались. Толковый словарь русского общего жаргона.* Москва, 1999.
- Колин, К.К. “О роли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в сохранении единого информационн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России.” *Информационное общество*, вып. 6 (1996)
- Костомаров, В.Г. *Языковой вкус эпохи. Из наблюдений над речевой практикой современных масс-медиа.* Москва, 1994.
- Петрова, Н.Е., Рацибурская, Л.В. *Язык современных СМИ. Средства речевой агрессии.* Москва, 2011.
- Ремнева, М.Л. “Язык и культура.” *Русский язык: исторические судьбы и современность: II Международный конгресс исследователей русского языка. Труды и материалы.* Москва, 2004.
- Россотрудничество. <http://rs.gov.ru/>
- Сиротинина, О.Б. “Положительные и негативные следствия двадцатилетней свободы русской речи.” *Проблемы речевой коммуникации*, вып. 8 (2008).
- Стернин, И.А. “Социальные факторы и развитие современного русского языка.” *Теоретическая и прикладная лингвистика*, Вып. 2. Язык и социальная среда (2000).
- Тишков, В.А. “Русский мир: смысл и стратегия.” *Стратегия России*, N. 7 (Июль, 2007).
- Тишков, В.А. “Русский язык и русскоязычное население в странах СНГ и Балтии.” Доклад на Общем собрании РАН (19.12.2007). <http://www.russian.slavica.org/article7386.html> (검색일: 2010.12.15)
- Тюроканова, Е. “Трудовая миграция в Россию.” *Демоскоп Weekly*, No. 315-316 (1-20.01.2008).

- Федеральная целевая программа “Русский язык” на 2002-2005. <http://elementy.ru/Library9/Progr483.htm?context=28809>
- Федеральная целевая программа “Русский язык” на 2006-2010. [http://www.programs-gov.ru/11\\_1.php](http://www.programs-gov.ru/11_1.php)
- Фонд «Русский мир». <http://www.ruskiymir.ru/ruskiymir/ru/>
- Фролов, В. “Новое управление: принципы мягкой силы. Как России работать в СНГ.” 14.04.2005. <http://www.centrasia.ru/newsA.php?st=1113458160> (검색일: 2011.02.04)
- Халеева, И.И. “Лингвистическая безопасность России.” *Вестник Российской Академии Наук*, том 76, No. 2 (2006).
- Щербакова, Е. “Почти во всех постсоветских странах выросла доля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титульной национальности.” *Демоскоп Weekly*, No. 2355-236 (20.02-05.03.2006).
- Bilaniuk, L. *Contested Tongues: Language Politics and Cultural Correction in Ukraine*.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05.
- Ciscel, M. H. *The Language of the Moldovans: Romania, Russia, and Identity in an Ex-Soviet Republic*. Lanham: Lexington Books, 2007.
- Laitin, D. D. *Identity in Formation: The Russian-Speaking Populations in the Near Abroad*.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8.
- Landau, J. M., & Kellner-Heinkele, B. *Politics of Language in the Ex-Soviet Muslim States*.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1.
- Lerhis, A., Kudors, A., Indāns, I. *Outside Influence on the Ethnic Integration Process in Latvia*. Riga, 2007.
- Меčkovskaja, N.B. “The Post-Soviet Russian Language: New Features of Its Sociolinguistic Status.” *Russian Linguistics*, Vol. 29 (2005).
- Pavlenko, A. “Russian in Post-Soviet Countries.” *Russian Linguistics*, Vol. 32 (2008).
- Smith, G., et al. *Nation-Building in the Post-Soviet Borderlands: The Politics of National Identiti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 Резюме

# Политик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 популяризации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в постсоветский период

Нам Хе Хён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имеет приоритетное значение в политик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для обеспечения лингвистическ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государства, сохранения идентичности “Русского мира” и укрепления «мягкой силы» России в международном обществе.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Ф проводит различные политические меры по поддержке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а именно, политику по поддержке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за рубежом, Федеральные целевые программы «Русский язык на 2002 г. – 2005 г.», «Русский язык на 2006 г. – 2010 г.». Также в целях популяризации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активно работают такие организации, как фонд «Русский мир» и «Рос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фера деятельности которых постоянно увеличивается и распространяется по всему миру.

Исходя из анализа политики РФ по укреплению статуса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мы пришли к выводу о том, чт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Ф достаточно хорошо осознает ту угрозу, которую представляет для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падение его юридического статуса в постсоветском пространстве, сокращение русскоязычного информационного поля, подавление его национальными языками на территории РФ, массовое смягчение норм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и другие неблагоприятные факторы. Учитывая эти обстоятельства,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Ф формирует направления

своей политики и конкретные задачи для решения этих проблем.

В частности, Федеральная целевая программа «Русский язык на 2002 г. – 2005 г.» являлась первым официальным выражением политики РФ, нацеленной на поддержку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Именно поэтому в данной программе большое внимание уделялось анализу языковой ситуации в постсоветском пространстве и на территории РФ, разработке новой методики преподавания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Проекты же, которые осуществлялись в рамках целевой программы «Русский язык на 2006 г. – 2010 г.», были разработаны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новыми целями: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это создание условий для реализации функций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как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языка РФ, и языка межнационального общения для укреплен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ости,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и престижа страны, развития интеграционных процессов в государствах-участниках СНГ, полноправного вхождения РФ в мировое политическое, экономическое, культурное и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е пространство. Здесь можно отчётливо наблюдать, какое важное значение придает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Ф поддержке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н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уровне.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и поддержание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в постсоветских странах, и в мире в целом, зависит от следующих факторов: 1) этнический и языковой состав населения страны; 2) языковые и идеологические факторы, определяющие отношение к русскому языку; 3) престиж русскоязычного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го сектора и возможность занятости русскоговорящих; 4) политическая, экономическая, культурная ориентация страны.

Но среди этих факторов политические меры могут касаться лишь тех аспектов, которые определяют отношение к русскому языку, и престиж русскоязычного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го сектора.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этим, для эффективного проведения политики по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ю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нами предлагаются следующие меры.

Во-первых, необходимо проводить активную пропаганду российских вузов

и прилагать особые усилия для поднятия статуса и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признания русского диплома, так как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статус отдельного языка зависит от степени его использования в тех областях науки, технологии, образования, в отношении которых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наблюдается возрастающий спрос во всем мире.

Во-вторых, необходимо обновление имиджа России и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Для избавления от старого империалистического и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го образа и создания нового глобального имиджа России и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нужно активное содействие не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РФ, в том числе, фонда «Русский мир». Особенно важно, чтобы русские центры в Корее, созданные фондом «Русский мир», начали свою деятельность именно с создания нового имиджа России в сознании корей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В-третьих, с целью стимулирования изучения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необходимо и дальше распространять русскую традиционную и современную культуру по всему миру. Сегодня русская массовая культура удерживает прежнее влияние на постсоветском пространстве, главным образом, посредством масс-медиа, 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Ф должно приложить максимум усилий для ее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и вне традиционных русскоязычных регионов. Укрепление культурного влияния России среди иностранной молодежи послужит сильной мотивацией к изучению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В-четвертых, необходимо создать органы, контролирующие язык СМИ. В первой и второй федеральных программах «Русский язык» были предприняты попытки разработать стандарт использования языка в СМИ, однако нужны еще более принудительные меры для нормализации языка современной российской прессы.